

한국에서의 해외지역 연구와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 세 은
(경희대학교)

1. 서론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 외국어 교육 및 지역 연구에 대한 성찰 및 발전방향의 모색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해외지역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성격이 시대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학이란 분과학문 전문가로서, 러시아라는 특정 지역 연구자로서 해외지역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해왔다. 필자는 지역에 관한 일반적 지식에 기반을 두면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자교육자이지만 대상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역학 교육을 받고 새로운 연구영역 및 연구방법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협의의 지역전문가라 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은 오늘날 특정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문학·역사·어학 등 다른 분과학문의 전공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이번 글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해외지역 관련 연구

* 본 논문은 2010년 10월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국학으로서의 지역 연구와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및 교육을 담당하는 문학 및 어학 전공자들과 10여 년 동안 함께하면서 겪은 혼란을 정리하고 나아가 인문학자들의 지역연구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하는 바람이다. 다른 하나는 해외지역의 영역을 교육하면서 느꼈던 체계적이지 못한 교과과정을 검토해보고자 함이다.

인문학자들의 지역연구에 대한 1차적인 오해는 정책적 연구라는 지역연구의 발생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 같다. 대부분 인문학 연구자들은 지역연구를 어학 및 문학을 제외한 정치학·경제학·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 영역으로 즉 협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학문의 학문’을 자임 하던 인문학이 지식체계의 변화요구에 직면하여 자신의 적응 논리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 교육부분에서 더욱더 불편한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광의의 지역연구자로서 교육에 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과학문의 전공자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가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주로 학문의 논리보다는 학문 및 교육 조직 내부의 논리 그리고 연구자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면서 복잡하다. 한편 지역연구가 통섭적 지식체계 구축,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부응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분과학문, 특히 인문학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측면도 오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연구의 정체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수십 년 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지만 공통적으로 학제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법의 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분과학문의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지역연구인가 아니면 지역학이나, 지역연구가 독자적인 방법론을 갖는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논의는 현시점에서 잠시 유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연구가 근대적 형태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인정하더라도, 그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연구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지역연구의 학문성을 논하기에 앞서 지역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다른 학문의 전문가와 공유할 수 있는 개념, 나아가 학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식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작업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학문의 대상이 자연적인 현상이든, 사회적인 현상이든, 문화적인 현상이든

복잡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한다. 여기서 복잡하다는 것은 구성요소가 많다는 것 보다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의미이다. 단지 그 현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인식방법(패러다임, 프레임, 시각 등), 개념,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관계성이 형성되고 있는 현상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논리를 차용하게 된다. 학제적 연구도 각 분과 학문의 성과에 기초할 때 더욱더 그 성과가 뛰어날 수 있다. 각 분과학문의 다양한 조합으로 학문의 텍스트가 다양해지고 그 범위는 확장되게 될 수 있다. 현상이 복잡성을 띠게 되면 그 연구방법 또한 잡종적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런 측면은 모든 연구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잡종성을 연구하는 영역이며 지적탐구의 방법인 학제적 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지역연구가 연구 영역을 넘나드는 새로운 연구영역을 만들고 있고, 학제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학 연구와 교육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의 해외지역 연구 및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학제성의 가능성을 복잡성 개념을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지역 연구¹⁾의 등장과 전개

좁은 의미의 지역연구는 19세기 유럽에서 제국주의 정책, 식민지 관리정책의 필요성으로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출발하여,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각 지역의 정치·경제 중심의 사회과학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광의적으로는 지역연구가 인간의 행동환경의 확대에 따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즉 여행기, 박물관·박물관지도가 지역연구의 모태가 된다. 이후 교통의 발달과 행동환경

1) ‘지역연구’ 또는 ‘지역학’이라는 용어는 구별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역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지역학’ 등이 학문적 정체성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지역학이 보다 정체성을 가진 분과학문의 특성을 내포하는 용어로, 지역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이희수 1996; 이중희 2000). 본 논문에서는 ‘지역연구’, ‘지역학’라는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

의 확대로 동방견문록(마르코폴로)과 같은 여행기, 모험가 및 선교사들의 항해 등을 거쳐 식민지시기에 이르러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연구형태로 본격화되었다. 특히 1884년 옥스퍼드대학에서 ‘민족학(Ethnology)’이란 강좌가 개설되면서 다양한 인류사회 조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그 후 사회인류학(Social Anthropology)이란 학문으로 보급되었다. 이 시기 사회학, 지리학, 민족학, 인류학, 비교종교학 등과 같은 학문에서 지역의 유기적 총체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타문화, 타민족에 대한 기술과 해석은 유럽중심적사고(자문화중심주의)에 기초하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 지역연구는 주로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실용적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전개되었다(황달기 2003: 312-316). 1970년대가 되면서 지역연구는 한편으로는 문화인류학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즉 내재적 관점,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학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화, 세계화 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세계화 정책은 해외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연구가 발전²⁾했고 나아가 교육제도가 변화했다. 미국에서 지역연구에 대한 성찰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지역연구의 급격히 활성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붕괴, 글로벌 경제의 가속화, 초국가적 문제 증대 등과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세계화 정책에 따라 해외지역 관련학과, 전문대학원, 학회 등이 빠른 속도로 설립되고, 지역연구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지원으로 성장하게 되었다.³⁾

-
- 2) 지역연구 관련 학회 및 대학 부설연구소가 발간하는 지역연구(어문학 계통 제외) 관련학술지는 93종에 이른다. 지역적 분포를 보면 일본이 17종, 동아시아-아태지역 16종, 중국 9종, 유럽지역 7종, 미국-캐나다 7종, 러시아-동유럽 6종, 동남아 5종, 중동-이슬람 3종, 아프리카 및 지중해 각각 2종, 중앙아시아 1종, 그리고 기타 지역 13종이다(홍두승 2008: 3).
- 3) 1990년대 이후 지역연구의 지원은 관련부서의 해외지역육성 방안이라는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인문한국사업을 제외하고 1991년 약 2억 예산으로 출발하여 2000년대 말 지역연구 지원규모는 100억을 넘었다. 20여년 사이에 5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이문영 2010: 254-255).

한국의 지역연구는 학문의 내적 요인보다 정책적 측면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추진되면서 정치적 생존, 경제적 이해관계의 극대화라는 동기에 영향 받았다. 이런 동기는 분과학문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분과학문에 의해 주도되면서 지역연구가 표방하는 학제적, 총체적 연구에 이르지 못했고, 대학제도 내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기피되었다(김경일 1997:9-10). 최근 들어 이런 경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연구는 정치·경제적 경향을 넘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 영역⁴⁾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지역연구는 시대적 그리고 정책적인 요청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증가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회의적인데, 이는 지역연구의 학제성이라는 보편적 속성 및 한국적 특수성과 연관된다. 오늘날 까지 지역연구의 정체성과 방법론에 대한 학문적 논의⁵⁾ 역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없는 상태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역연구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다양한 연구경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당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연구가 정책지향에서 출발하였지만 주류이론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면서 분절되고 세분화된 분과학문의 편협성에 대한 도전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였다. 전통적 분과학문에 대한 대안제시, 다학문체제, 문화상대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 탈식민주의 담론 등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 쟁점을 제기하면서 학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4) 인문한국사업으로 대표되는 2000년대 국가 지원 사업은 정책 지향성과 실용성 지향의 기존 연구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학제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인문한국 해외지역연구소 지원사업의 총액은 3-10년 동안 지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2007년 28억 2백만 원, 2008년 65억 7천만 원, 2009년 약 99억 5천만 원에 이른다(앞의 책, 254- 255).

5) 지역연구의 정체성과 방법(론)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권태환·이상섭(1998); 김경일(1998); 김시홍(1997); 김영명·권용립·신동호(1987); 김웅진(2002c); 김지희·김웅진(2003); 박노호(1996); 박용구(1996); 신경환·황기돈(1997); 신윤환·이성형(1996); 이수훈(1998); 이중희(2000); 이철원(1996b); 이희수(1996); 전경수(1999); 정해조(1998); 조기숙(1998); 최협(1997); 한재영·홍순호(1996); 황달기(2003); 홍순호(1996) 참조.

III. 지역연구의 특성과 쟁점⁶⁾

최근까지 지역연구가 분과학문 간, 개별기술적과 법칙정립적 접근 간, 맥락적 지식과 보편이론 간의 경계를 융합하지 못함으로써 학문으로서 정체성이 의심받아 왔다. 구체적이고 정치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분과학문의 공세에 무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결과 많은 지역연구자들이 비교정치학, 비교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문학과 같은 분과학문에 자신의 학문 정체성을 두면서 부분적으로 지역연구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측면은 대학이라는 제도권에서 보다 명확하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제도에서 지역연구 영역은 학문적 논리보다는 조직자체의 논리에 영향을 받아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있다.

지역연구에 대한 비판은 학문 내외적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학문 외적으로 냉전종식, 국민국가의 약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현상과 관련된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학문내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중 핵심적인 논쟁은 지역의 개념, 학제적 방법에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다.

지역연구의 목적은 특정지역의 총체적 이해로 볼 수 있다. 우선 지역개념과 관련한 논쟁을 살펴보자. 오늘날 탈경계, 트랜스내셔널리즘 같은 담론으로 공간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에서 민족, 국가, 경계, 지역성과 같은 공간에 대한 전통적 범주가 변화하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근대적 공간에 대한 연구가 유효한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공간의 의미화 방법이 변화할 수 있고 지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기에 지역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⁷⁾. 따라서 지역은 정치·경제적 위치(정책적, 세계지역적 차원), 문화적 유사성(인류학적 차원), 국가 내 하위단위(지방적 차원)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시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기에 그 개념 또한 구성적 측면에 따라 규정될 수밖에 없다.⁸⁾

6) 지역연구의 특성과 쟁점들은 즐고(권세은 2004)를 참고.

7) 지역을 이해하는 입장에 따라 지역을 조작적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하고 실재적 존재로 파악하기도 한다. 지역명목론 입장인 조작적 개념에서 지역은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실재라기보다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따라 가변적이다. 실재론적 입장에서 지역은 역사적 형성물로 간주한다(황달기 2003: 306).

8) 연구 범위로서 지역은 인지주체에 따라 문제영역, 촌락, 도시, 공동체, 민족국가,

학제성과 관련한 논쟁은 보다 근원적이고 복잡하다. 근대학문은 발전과정에서 분화(세분화), 심화(전문화)되고 나아가 분열되어 왔다. 학문의 병적인 분열 경향을 극복하고 모든 현상의 중첩성과 상호연결성을 설명하고자 학제적 연구방법론이 등장했다. 하지만 학제적 연구를 표방한 지역연구는 학문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다양한 학문영역⁹⁾에서 개발된 분과학문의 방법론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학문들은 공히 자신의 방법에 의거해 특정 지역에 대한 총체적 규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자신의 분과학문 측면에서 학제적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지역연구가 분과학문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고유의 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는 데 이 측면에서 지역연구는 아직 한계가 있다.¹⁰⁾ 정책적 요청이라는

국가간, 초국가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야노토루 1997: 26). 하지만 오늘 날까지 주된 연구지역은 국가단위였는데 국제화 및 지방화, 경제블록화 경향과 초국가 단위, 민족, 종교, 문화의 갈등 증대로 인하여 국가 이외의 문화지역단위, 초국가단위, 지방단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학에서 지역은 주로 지방을 의미하고, 외국학(foreign studies)에서는 해외지역연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학에서의 지역연구에 대해서는 김동철외(2009, 227-249) 참조.

- 9) 지역연구는 주로 인류학, 정치학, 지리학 등 인문학 및 사회과학 영역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는데, 학문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인류학적인 접근은 정치학적 정책 연구와 다르게 지역에 대한 폭넓은 영역 즉 포괄적인 생활영역인 문화에 초점을 둔다. ‘문화상대주의’와 ‘문화비교적 접근방법’과 같은 인류학의 주요개념들이 오늘날 지역연구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역연구와 인류학에 대한 연구는 최협(1997), 문옥표(1997) 참조. 지역연구에 있어서 정치학은 연구의 목적과 특성으로 인해 그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다. 지역학의 정책과학화 문제와 정치학 연구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경향으로 지역연구와 정치학의 발전이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관련연구는 주로 비교연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학과 지역연구는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통적이다. 지리학은 지역의 자연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는데, 본격적인 정책적 지역연구가 태동한 후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역 지리학에서는 특정지역이 고유성, 개별성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생태학적, 경관론적, 지역 차이론적, 체계적 접근 등이 주된 방법론을 형성하고 있다. 지리학과 지역연구의 관련성은 김희순(2000); 박삼옥(1992); 이재하(1997); 이진(1998); 이희연·최재현(1998) 참조.
- 10) 지역연구가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우선 고유한 영역으로서 분과학문의 가능성을 부정(권태환 1998; 서제만 1998)하거나 회의적인 경우(전경수 1999; 김웅진 1992)는 지역연구가 단지 분과학문에 자료를 제공해

외적인 측면과 ‘間 학문’이라는 학문의 내적 측면에서의 존재의 피구속성 때문에 지역연구는 그 정체성의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개별 기술(idiographic)과 법칙정립(nomothetic) 간, 지역전문가(area specialist)와 분과학전문가(discipline generalist) 간의 상이한 접근방법¹¹⁾이 충돌한다. 초기에는 지역연구의 인문학적 접근이 우세했지만 점차 사회과학적 비교연구(2차 세계대전 후 비교발전론, 비교역사학, 비교정치학)가 우세해지게 되었다. 한편 인문학적 지역연구 및 비교지역연구는 비교연구란 측면에서 유용성을 갖지만 지역연구의 일반이론 수립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¹²⁾

한국에서 지역연구는 연구의 보편적 속성과 더불어 한국의 특성이 결부되면서 한국적 지역연구를 형성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 한국의 지역연구는 미국의 지역연구 방법론과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서 현상적인 정책분석의 차원이거나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논평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근래 들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된 한국형 지역연구의 방법모색이 절실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홍순호 1996; 한재영 외 1996; 조기숙 1998). 이 논의에서는 세계화 및 국제화 경향에서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국형 지역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냉전과 탈냉전의 과제, 선진국과 후진국에 대한 전략, 지역연구와 국제학의 융합, 지역연구와 문화연구 연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연구의 다분과학문성(multidisciplinarity) 및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실현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반면에 지역연구의 분과학문으로서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경우(한재영의 1996; 이철원 1996; 최협 1996; 이희수: 1996)는 지역연구가 고유한 이론과 방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11) 분과학문 전문가는 지역전문가가 상세한 지역의 자료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지역전문가는 보편주의자들이 지역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지역전문가는 특정 시간과 공간에 준거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분과학문 전문가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Wallerstein, 1996:26).
- 12) 문화인류학과 사회인류학은 다원주의 및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관점에서 모든 특정의 행위와 과정을 타당하게 인정하는 반면, 사회학이나 경제학 연구는 일원론, 보편론을 견지하고 있다. 행태주의 방법 하에 사회과학은 점차 자연과학적 모델을 추구하면서 지역연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지역연구의 정체성 모색은 ‘지역관’ 즉 ‘지역’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지역을 해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모델이 모색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 패러다임에서는 관찰의 주체와 객체는 상호 독립적이다. 따라서 ‘타자성(otherness)’에 대한 이해과정에서 인식하는 주체는 인식의 대상 즉 ‘타자’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주체가 대상을 연구하는 일방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나’와 ‘너’가 만나고 상호 교차하는 ‘제(際)’의 영역에서 지역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영역, 학문영역에서도 ‘제(際)’의 영역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 측면에서 학제적 연구의 출발점은 총체적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지배적인 학문체계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지식들은 구획화, 부분화, 파편화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의 분열현상은 극복대상이지만 동시에 조건이다. 따라서 통합은 환원이나 축소보다는 복잡한 차이들의 인정이고, 관계 맺기이다(강내희 1997: 32).

지역연구는 주체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재정의 될 수밖에 없다.¹³⁾ 이에 지역연구의 정책적 목적과 학문적 목적은 주체에 따라 다르며 이 두 목적은 배타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지역연구가 정책적 목적을 배제할 경우 그 존재이유가 약화될 수도 있다. 우리의 타자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과 상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연구의 학문적 목적과 정책적 목적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지역연구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13) 지역연구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성격을 달리해왔다. 지역연구가 미국에서는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영국·프랑스에서는 인문학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미국의 지역연구는 대학 중심인 반면에 프랑스는 국가 중심, 일본은 절충형으로 나타났다(조기숙 1998: 10-13). 한편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들의 지역연구는 세력 팽창의 목적을 위해 또는 국가이익을 위해 존재했지만, 제3세계에서의 지역연구는 국가발전 모델, 민주주의 모델, 근대국가형성 모델에 대한 연구이기에 선진국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최협 1996:20).

IV. 해외지역에 대한 교육

1990년대 이후 실용성이라는 국가사회적인 요구와 어문학 중심 기존의 외국학 교육에 대한 내적인 자성으로 지역에 대한 지식이 ‘지역학’ 및 ‘문화강좌’라는 이름으로 교과과정에 도입되었다.¹⁴⁾ 하지만 교과 구성적 측면에서 여전히 언어-문학 교육의 근간에 지역-문화 성격의 과목을 추가하는 ‘보수적 절충형’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내적으로는 학제적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적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외국학 관련 교육의 변화 형태¹⁵⁾를 보면 ‘어문학형’, ‘지역어학+지역학형’, ‘지역언어+문화형’, ‘지역문화형’, ‘지역학형’, ‘지역언어형’ 등 매우 다양하다. 기존 체제에서 변화 움직임은 있지만 변화 자체가 수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편된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 교과과정은 외국어 학습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의사소통도구로서 외국어학습, 어문학이라는 순수학문 그리고 지역 문화라는 광범위한 영역이 효율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 쏟는 관심, 노력,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외국학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무엇보다도 언어와 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문화교수방법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김옥선·김춘동 2007: 14)

학점 이수 체계를 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언어학점이 50% 이상으로 ‘외국어 학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는 종종 분리 될 수밖에 없다. 교육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가 아닌 언어교육의 방법 개발에 시간을 투자해야하고, 피교육자는 전문언어 교원이 아닌 분과학문 교원에게 교육 받음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교

14) 여기서 지역학은 언어, 문학, 어학을 제외한 비어문학 분야에 대한 총칭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학 교육과정에서 언어 교육과 지역학의 상호 발전적 관계를 체계화하지 않은 채 정치-사회-문화-역사 등 모든 비언어 영역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 학부수준 학생에게 교육하려는 의욕은 지나친 면이 있다(임상래 2001: 284).

15) 인문학 연구와 교육체계에 대한 성찰은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2004-03) 참고.

육과정의 특성은 대학원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학부에서 언어 중심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최소한의 분과 학문적인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대학원에 진학함으로써 지역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게 된다.

1990년대부터 외국학 연구 및 교육 분야¹⁶⁾에서 학제적 연구·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분과학문간 연계전공 및 협동과정, 지역-문화학 통합과정 등이 논의되어 왔다. 상당수 대학에서 학부과정에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대학원을 중심으로 협동과정 개설해 오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어학 및 문학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해당 언어권의 문화와 역사, 정치와 경제를 포괄하는 지식통합형 교육인 지역문화학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학과의 폐쇄성, 이기주의, 기존 제도와의 충돌로 인해 아직까지 새로운 학문체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 76).

기본적으로 외국학의 교육목표는 ‘OOO어 전문인력 양성’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OOO어 전문인력이란 OOO어에 전문적인 이해를 갖춘 지역전문가를 의미한다. 이런 목표를 고려하면 언어와 문학은 교육의 목표라기보다는 수단이자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와 같은 사회과학 중심의 지역학에 대한 교육 또한 분과학문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외국학 교육과정에서 핵심은 의사소통 중심 언어교육과 실용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나 수준에 따라 몇 가지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언어소통능력에 중점을 두는 경우, 일차적 목표는 그 언어사용의 규칙과 사회문화적 이해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이해는 사회적·문화적인 맥락과 관련하여 교육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언어 외적인 부분은 언어소통능력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으로 동원된다. 여기서 문화는 확장된 개념으로 ‘총체적 삶의 방식’으로 지역정보, 일상문화, 문화현상 등을 포함하게 된다.¹⁷⁾

16) 교육분야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권오현(1996, 2003), 김경석(2008), 김옥선(2001), 김옥선·김춘동(2007), 우복남(2006), 이성재(1999), 이정민(2009), 이현송(2004), 임상래(2001), 정해수(2003), 인문사회연구회(2004) 등.

17) 외국 언어와 문화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의사소통능력은 단순히 타인의 가치체계와 문화행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의 언어로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외국학의 목표를 ‘해외지역에 대하여 인문 및 사회과학 전반의 포괄적 지식을 지닌 지역전문가의 육성’으로 정할 경우, 필요한 요건은 교육과정의 다학제적 설계와 언어교육이다. 다학제적 교육과정은 수준별 지역이해를 위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된다. 기초 교과목은 언어 향상을 위한 역사, 지리, 사회문화 일반 즉 지역에 대한 정보,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다. 심화과목인 경우 문학, 어학, 철학, 종교와 같은 인문학 영역과 정치, 경제, 사회와 같은 사회과학 영역을 아우르는 다학제적인 지역연구 및 문화연구 과정을 활용한다.¹⁸⁾ 또 다른 방안은 학부의 연계전공이나 대학원의 협동과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부 수준에서 OOO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전공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제2외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학일 경우, 학부에서 언어습득과 종합적 지식을 동시에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다른 분과학문과 연계하거나 학부수준에서는 언어습득 능력에 중점을 두고 대학원에서 종합적 지식을 제공하는 지역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외국학 교육의 한 분야로서 ‘지역문화연구’, ‘지역문화학(area culture studies)’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연구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성과를 수용하여 해외지역학의 연구 성과와 문화연구 성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특정 지역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하는 학문’으로 규정된다 (인문사회연구회 2004: 79-90). 지역연구에 문화를 도입하는 것은 확장된 문화개념으로 현대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인간행위 총체를 반영하고 있어서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문화연구는 해당 지역 현상의 작동원리를 인식하기 위해 지역인의 삶의 총체인 일상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문학은 해당 지역의 문예적 지식을, 언어는 해당 지역의 문화를 인식하기 위한 기초

만이 아니라, ‘상이한 민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를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상호간에 관계를 형성하는데 요구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차원의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이정민 2009: 118).

18) 미국 지역학 프로그램을 기초(언어, 지역기초)와 심화로 구분하고, 인문학, 사회과학의 연계한 심화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이현송(2004, 433-434) 참조.

로 작용하게 된다.

지역문화학이 기존의 지역학과 구별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입장 즉 정치, 경제, 사회 등 삶을 규정하는 다른 측면과 구별되는 보다 좁은 의미에서, 즉 사회학적으로 파악할 경우이다(앞의 책: 79). 사회학적으로 지역문화에 접근할 때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문화산업, 헤게모니 등과 같은 사회학적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기존 지역학의 사회과학적 성격, 어문학의 문자 텍스트 성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총체적 연구 방향이 된다.

언어소통 중심과정이든, 다학제적 교육과정이든, 지역문화연구 및 지역문화학 과정이든 해외지역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한국의 현실에서의 실용성·효율성이다. 그리고 제1외국어 기반과 제2외국어 기반 해외지역 교육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학제성에 기반을 둔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V. 패러다임의 전환

오늘날 지역연구와 교육의 학제성 및 다층성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식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연구와 교육이 나름대로의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과학문의 전문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을 개발하고, 문제영역의 동형성을 설정하여 그것을 각각의 연구와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다양한 학문, 연구프로그램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형성된다. 이런 새로운 접속이 학문의 새로운 회로를 생성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지역연구는 분과학문을 전공하는 몇몇 사람들의 공동연구로 귀착될 가능성이 학제적 연구 또는 초학문적 연구로의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인 지역연구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전제로 하고 있는 패러다임에 있다. 실증주의, 합리적 선택 이론이 공통적으로 근거하는 근대적 패러다임에서는 다양한 분과학문의 지역

연구가 수렴 및 통합될 수 없다. 결국 다양한 학문, 연구프로그램들을 통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분과학문이 다르더라도 패러다임이 동일한 연구자간에는 패러다임이 다른 동일 분과학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보다 지역연구가 더 적절히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연구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가치가 확실해지게 된다 (이철원 1995: 14; 이희수 1996: 13-14).

세계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은 지적인 한계로 인해 세상을 구분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근대학문체계는 미분화된 가치체계를 분화시켜 분석함으로써 지식의 발달에 기여한 점이 있지만, 동시에 과학지상주의 경향으로 흘러 전문화, 세분화, 파편화와 같은 병리현상을 낳았다. 이렇게 형성된 지식은 종종 학문 내적 체계의 원리에 종속되면서 사회적 의미체계나 인식대상인 현상과 떨어져 나오게 된다.¹⁹⁾ 결국 현상을 규명하려고 도입된 논리가 현상과 괴리되어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남게 되면서 그 존재의 이유는 약화되었다. 복잡성 패러다임은 이런 분열적인 현상, 환원주의 방법, 객관적 실재성에 대한 신념, 주체와 객체의 분리 등과 같은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자연현상, 사회현상 등 모든 현상을 ‘복잡성’²⁰⁾으로 인식하는 것은 새로운 이론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복잡성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 즉 근대의 분석(analysis), 환원주의(reductionism), 결정론(determinism)에 기초한 기계론적 패러다임(mechanistic paradigm) 및 전통적 체계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인식방법을 의미한다.²¹⁾

19) 근대 학문의 형태는 마치 디지털 변환기와 같다. 디지털은 분석적이고 분절적이고 계수적인 형태의 지식을 말하고 아날로그는 통합적이고 전체 맥락적이고 상황적이다. 디지털 형태의 정보전달은 대상을 단위화하고 정보전달을 어떤 실체에 편입시키면서 정보전달의 오차를 줄이게 된다. 하지만 자연의 연속적인 아날로그 상태의 많은 것은 디지털 단위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왜곡된다(최종덕 2003: 292).

20) 복잡성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개념들(복잡성의 과학, 복잡계, 복잡성이론, 비선형 과학, 자기조직화 패러다임, 카오스 이론 등)이 모두 동의어로 취급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복잡성이 다양한 개념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통합된 이론(meta-theory),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복잡성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모든 현상에서의 구조와 관계의 복잡성을 가정하는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은 질서정연한 코스모스에서 혼돈스런 카오스까지의 넓은 영역인 복잡계를 가정하면서 세계를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질서-무질서', '무질서-질서', '질서-질서'로 상호 전환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고의 특징은 맥락적 사고(contextual thinking), 과정 사고(process thinking)²²⁾가 된다. 전통적 패러다임에서는 기본적인 구조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상호작용하게 하는, 과정을 발생시키는 힘과 역학이 존재한다. 반면 복잡성 패러다임에서 모든 구조와 현상들은 과정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발현(emergence)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모든 과정이 스스로 자신들의 규범을 만들어 내는, 즉 과정이 구조를 만든다는 명제가 제시된다. 따라서 세계는 해체되면서 동시에 조직되는 과정적 존재이고, 생명체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복잡한 자기생태조직인 것이다.

복잡성 패러다임의 원리는 총체성(holism), 전체성(wholeness)이다. 모든 세계는 환원될 수 없는 전체(whole)이기에 전체적(holistic)인 이해가 필요하다. '전체는 부분의 총화이상이다'라는 진술로 대표되는 이 논리는 복잡한 현실을 요소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요소환원주의를 비판하게 된다. 요소환원주의에 의하면 아무리 복잡한 체계라도 그 구성요소들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이해 가능하다. 단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매우 복잡하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패러다임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 우리사회의 전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²³⁾ 그런데 분석을 위해 어떤 대상을 분할 할 때마다 전체

-
- 21) 오래전부터 현상들을 인식하는 방법이 원자론과 전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전통적 패러다임은 과거와 미래,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균형이 존재한다는 뉴턴의 기계론적 패러다임과 자연과 인간, 물질과 정신, 물질계와 정신계 간의 근본적인 구별이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이원주의에 기초한다. 한편 이와 대립되는 견해로 부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성질의 전체를 통찰하는 철학적인 접근이 생기론에 의해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인식방법들은 전체와 부분을 절대적 실체로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 22) 과정적 사고의 극단적인 경향은 오늘날 과학기술을 사회적 과정의 산물, 인간 상호작용의 산물을 여기는 기술사회학 그리고 지식, 과학기술, 자연법칙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담론에 의해 의식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사회구성론(social constructivis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를 이루고 있는 본질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환원론’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런 한계의 보완방법으로 종합이라는 기법이 등장하였지만, 전문 분야로 분석된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상이한 전문분야의 단순한 ‘조합’ 이상의 내용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세계는 수평적으로는 동일 위계의 협동적 상호의존성으로, 수직적으로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창발성으로 각 수준 및 차원에서 새로운 속성이 생기게 된다. 즉 전체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지만 요소가 소유하지 않는 속성을 갖게 되기에 낮은 수준의 부분적 속성을 이해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창발적 속성 즉 전체의 패턴을 추론해 낼 수 없게 된다. 부분론이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문영역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원인은 그 논리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물질세계의 한 측면에 대한 정확한 해석 등이 있다. 반면에 홀리즘의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은 과학기술시대로 지칭되는 시대에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찾기가 쉽지 않아 그 영역을 확대하지 못했다. 결국 부분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체론은 구체적인 수단을 갖지 못함으로써 ‘요소환원주의는 과학적인 방법론이지만 포괄주의는 메타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²⁴⁾

전통적 패러다임은 보편적 원리, 단선적 인과관계,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등의 개념을 전제하지만, 복잡성 패러다임에서는 복잡인과성(complex causality) 및 상호인과관계(mutual causality) 그리고 요소 간, 요소와 환경

23) 그 대표적 논리 ‘인간은 연소체계에 의해 작동되는 하나의 복잡한 생화학적 기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 논리가 단순히 기계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불과하다’라는 소위 ‘불과주의(nothing-but-ism)’에 있다. 복잡한 현상의 분석은 단지 전체 그림의 단편이나 특정 국면만을 밝혀줄 뿐인데 그 것에 대해 이것 또는 저것에 ‘불과하다’라고 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인간이 90%의 물과 10%의 광물질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정의(물질적으로 옳을 수도 있다)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에 불과하다’라고 정의하는 측면이 모순인 것이다 (Arthur Koestler 1994: 39).

24) ‘장미는 장미이므로 장미이다’라는 홀리즘적 진술은 장미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진술하는 환원주의와 마찬가지로 ‘장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자체로서 완전한 ‘전체’에 대한 고찰이라는 방법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부분’으로의 설명만큼이나 오류투성인 패러다임이다.

간의 비선형적 순환성을 전제한다. 모든 세계는 상호 원인을 초래하는 원인의 자기조직화 과정으로 공진화(coevolution)하며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띠게 된다. 경로의존 즉 역사적 의존성에 의하면 지역의 역사가 다르면 그 속성도 다르게 된다.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과 제3세계에서 나타난 현상의 차이와 그 과정의 차이가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합리적 선택이론과 비교연구와 같은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으로 실제 선택된 정책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모순이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체계는 최적이라기보다는 우연한 과정에서 형성되어 진화해 온 결과일 뿐이다.

전통적 패러다임에 기초하는 방법론은 주로 모든 변수들의 중요도를 매기고 그 결정적인 변수를 찾아 현상을 설명하게 된다. 여기서 독립변수가 실제 존재하고 그 것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 이 패러다임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찾아내고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선형회귀분석이 사회과학의 주요 방법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함수중심 연구방법은 함수를 고정되게 가정하고 변수를 조작하는 방법이고, 변수중심연구 방법은 구조를 변수로 환원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결국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만 확인하고(안승국의 2002: 46) 일반법칙을 사례적으로 증명할 뿐이다. 게다가 분과학문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론, 실증주의적 경성체제이론, 사회학의 구조기능주의, 근대화이론, 국제관계의 현실주의, 구조주의 등은 공통적으로 간결성, 안정성, 보편성에 대한 가정에 집착하고 있다. 결국 전통적 패러다임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현재의 속성을 분석할 수 있지만 지역의 형성과정과 향후 변천과정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복잡성 패러다임에서는 단순한 요소들의 상술도 중요시되지만 요소가 전체시스템(구조)이 되기까지의 상호작용 즉 과정이 핵심적으로 고려된다. 요소 간, 요소와 환경 간의 선형적인 및 비선형적인 복잡인과관계(complex causation)의 파악이 연구의 핵심이 된다.

VI. 결론

지역연구가 정책적 필요에서 출발했다하여 사이비 과학으로 비난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학문은 순수하게 학문으로서만 존재할 수 없다. 특히 사회적 현상을 규명하고 해석하는 학문의 사회적 구속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비난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 게다가 이런 비난을 인정한다고 해도 오늘날 세계화시대에서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조차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독수(毒樹)의 독과(毒果) 원칙’이 학문에서 적용되어야 하는가? 비학문적 의도에서 시작되었다하여 그 성과, 즉 지역학에서 고안된 개념, 프로그램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²⁵⁾.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역연구가 학문내적 발전과정에서 인식론적 방법론을 지닌 연구프로그램에서 출발하였다기보다는 시대적·정책적 요구에 따라 분절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분과학문체계에서 학제적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여 새로운 지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오래전부터 지역연구에 있어서 학제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그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해 여전히 학문적 정체성은 확립되지 못했다. 핵심은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에 있는데 그 모색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존재론적인 한계로 큰 진전이 없었다. 전통 패러다임 하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방법론의 연계성을 찾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연구의 정체성과 방법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인식의 틀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복잡한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근대이후 가속화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분리는 인류사를 구성해 온 주체(인간), 사회, 자연의 상호관계의 과정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25) 지정학의 경우를 검토해보자. 지정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특정 국가전략 및 외교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특히 독일 지정학은 세계대전을 합리화했다는 이유로 사이비과학의 오명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국가전략에 대한 과거의 지정학적 서술에서 벗어나, 연구영역을 확장시키는 비판지정학으로 대두되었다. 즉 지리 지식을 권력관계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세계를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되고 해석되는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지상현·콜린플린트 2009).

따라 발생한 특수한 역사적 과정이다.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이해 없는 주체(인간)에 대한 고립된 연구는 인문학적 편향을 낳고, 인간과 사회에 연결되지 않는 자연에 대한 연구는 위험사회를 낳게 된다.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분리를 다시 ‘역사화’할 필요가 있다. 과학(과학은 발전한다)이나 인간(인간은 진화한다)이성은 초역사적 본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학, 역사적 이성일 수밖에 없다(문화/과학 편집위원회 2003, 39). 결국 분과학문 또한 시대적으로 잠정적으로 구성되었다가 해체되는 연구 프로그램일 뿐이다.

학문영역에서 복잡성 패러다임은 철학이거나 학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고방식이다. 이 패러다임의 핵심은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대립시키지 않고, 연구대상을 고립시켜 사고하는 것을 지양하고 상호 연결되는 과정을 고려하는 사고이다. 따라서 그 성격은 항상 확실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사고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리나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상은 인식의 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그 틀은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항상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은 근대적 가정과 인과성의 관념을 거부하고 복수성, 다원성, 파편성, 미결정성을 옹호함으로써 대부분의 근대이론이 상정했던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주체를 포기하고 사회적, 언어적으로 탈 중심화되고 파편화된 주체를 내세운다.

기존 학문체계에서 출발한, 해외지역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은 오늘날 현장에서 새로운 학문적 경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지역연구는 학문만 아니라 교육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학문은 제도 즉 지배적인 지식체계 나아가 교육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성격으로 인해 학제적 연구는 학문적 영역에서보다는 기존의 분과학문적 지식체계와 충돌하게 되고, 그 논쟁은 사회성을 띠 수밖에 없다. 학문은 순수하게 학문으로서만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기반을 통해 존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적 지형에 적합한 지역 연구와 교육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존하는 연구 및 교육체계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간 학제적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출발할 경우 새로운 지적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내희. 1997. “분과학문 체계의 해체와 지식생산의 ‘절합적 통합’”. 『문화과학』1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7.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학 응용방안』. 경제·인문사
회연구회.
- 권세은. 2004. “지역연구의 패러다임으로서 복잡성에 대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8(1).
- 권오현. 1996. “간문화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외국어교육”. 『독어교육』 14.
_____. 2003. “문화와 외국어 교육”. 『독어교육』 28.
- 권태환·이상섭. 1998. 『한국의 지역연구: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경석. 2008. “지역학과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문교육』28.
- 김경일 편저. 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화과학사.
- 김동철·문제원·차윤정·하세봉. 2009. “한국학에서 지역연구의 방법론과 과제”. 『동북아문
화연구』 20(1).
- 김시흥. 1997. “지역학으로서의 이탈리아연구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어이 문학』9.
- 김영명·권용립·신동호. 1987.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1.
- 김옥선. 2001. 「DACH-구상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외국어로서 독일어에서의 지역사
정」. 『독일어문학』 15.
- 김옥선·김춘동. 2007. “외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 정립에 관한 모색: 문화인류
학의 문화연구방법을 토대로”. 『독어교육』 38.
- 김웅진. 2002. “지역연구방법론의 허상” 『사회과학논집』 T9(2). 한국외국어대학부설
사회과학연구소.
- 김지희·김웅진. 2003. 『비교지역연구전략(방법론적 성찰)』. 서울: 인간사랑.
- 김희순. 2000. “지역연구 특성과 지리학과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32(2).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2003. “문화/과학-과학혁명과 문화연구의 변증법적 절합”. 『
문화/과학』36.
- 박노호. 1996. “지역학과 경제학,” 한국외대 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
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박삼욱. 1992.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우리나라 지역연구 현황. 문제점·활성화 방
안연구』. 서울대학교 지역연구 종합센터.
- 박용구. 1995. “지역학의 대상과 방법(론)”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
교 출판부.
- 신경환·황기돈. 1997. “국제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일고찰”. 『국제통상연구』2(2).

- 신윤환·이성형 1996.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2(1).
- 안승국·김유경·이은정. 2002. “비교, 지역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적 전략과 인과적 추론”. 이상환, 김웅진 외, 『지역연구:영역, 대상, 전략』. 서울: 형설출판사.
- 야노 토루 엮음.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옮김. 1997. 『지역연구의 방법』. 서울: 전예원. 우북남. 2006.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육과 은유”. 『슬라브어연구』11.
- 이문영. 2010. “1990년대 이후 지역연구의 쟁점과 전망”. 『中蘇研究』34(2).
- 이성재. 1999.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27.
- 이수훈. 1998. “한국의 지역연구와 사회과학”. 이상섭·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재하. 1997.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세계체계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3(1).
- 이전. 1998. 『한국의 지역연구-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지역연구 총서.
- 이정민. 2009.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 요구되는 문화능력의 교수-학습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31.
- 이중희. 2000. “한국의 지역연구:가능성과 한계”. 『국제지역연구』4(1).
- 이철원. 1996a. “지역학과 정치학.” 한국외대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이현승. 2004. “미국지역학의 개념과 교육프로그램”. 『국제지역연구』13(1).
- 이희수. 1996. “지역연구 방법론 고찰”. 『한국이슬람학회논총』6.
- 이희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33(4).
- 인문사회연구회. 2004. 『대학원 체제 변화에 따른 인문학 연구 및 교육 체계 개편방안』. 인문사회연구회.
- 임상래. 2001. “외국어교육과 지역학: 스페인어교육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5(2).
- 전경수. 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해수. 2003. “국내 대학에서의 문화 관련 강좌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프랑스 문화 및 지역연구 강의를 위한 제언”. 『프랑스학연구』25.
- 정해조. 1998. “지역연구방법론(1)”. 『국제지역연구』2(2).
- 조기숙. 1998. “한국에서의 지역연구:정체성과 방법론”. 『세계지역연구논총』12.
- 지상현·콜린플린트.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비판지정학”. 『공간과 사회』

31.

- 최 협. 1997. 『인류학과 지역연구』. 서울: 나남출판.
- 최종덕. 2003. 『인문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서울: 휴머니스트.
- 한재영·홍순호. 1996. “비교론적, 학제적 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연구”. 『연구논집』
3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홍두승. 2008. “사회학과 지역연구: 한국 사회학의 국제화를 위하여”. 『한국사회학』
42(1).
- 홍순호. 1996. “한국 세계지역연구의 반성과 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10.
- 황달기. 2003. “지역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어문학』, 21.
- Koestler, Arthur. 최효선 옮김. 1994. 『야누스-혁명적 홀론이론』, 범양사.
- Wallerstein, I. 이수훈역. 1996. 『사회과학의 개방』, 당대.

❖ ABSTRACT

Rethinking of Research and Educational Trends in Foreign Studies Field in Korea

Kwon Se Eun

This paper is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research and educational problems of foreign studies in Korean universities and review some alternative ways.

Area studies as foreign studies have several characteristic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research disciplines. It is a research and educational program that promote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of a specific area in the world. For better understand 'others', researchers in the field of area studies must explain the whole mechanism of the area, which could be revealed in terms of the very existence of its reality.

Foreign studies are accomplished with joint-research method, collaborating two or more different research disciplines and based on the contemporary system of knowledge accumulation and educational program. Therefore, the critical issue can be gradually taken on a polit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 At this point, research and educational manner in foreign studies field in Korea should be changed to secure the academic reflections of temporality, sociality, placeness using a new paradigm such as complexity.

Key Words

외국학, 지역연구, 지역문화연구, 학제성, 복잡성

foreign studies, area studies, area-culture studies, interdisciplinarity, complexity

논문접수일: 2011. 01. 22.

심사완료일: 2011. 02. 21.

게재확정일: 2011. 03. 10.